

國內・國際 短 信

★ 貫通路 7月內착공

(貞陵~洗劍洞間)

서울시는 6월 30일 북부서울의 동서를 연결하게 될 정릉~세검동간 간선도로를 7월중에 착공, 내년 연말까지 준공키로 했다.

성북구 정릉동 우식대 앞에서 시대분구 땡창동과, 세검국민학교앞을 거쳐 홍제동까지 이르게 될 이 도로는 총 연장 6천5백m 폭 15~25m이며 도로 중간 부분인 땡창과 정릉(비봉앞) 간은 길이 750m 폭 10m의 「터널」로 연결된다.

이 도로 건설에는 총 예산 15억5천6백만원이 들며, 신탁은행이 8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되며 준공후 유료화된다.

이 도로가 개통될 경우 정릉에서 홍제동까지의 거리는 현재 「코스」보다 20분간 단축되며 강변 3,4로와 연결되는 서울의 제2 순환도로로 방위상 전략구실을 하게 된다.

이 도로의 통행료는 대형차 1백원 소형차 60원을 받을 계획이다.

★ 不法駐車車輛은 強制連行도 可能

내무부는 고속도로가 발견되고 자동차 대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주차하는 차량을 경찰이 강제인행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보냈다.

★ 大都市 디젤車 추방

段階的으로 서울 年內 모두 개솔린化

정부는 대도시 공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도시에서의 「디젤」차량 운행을 단계적으로 금지키로하고 1차로 서울은 금년안으로 「개솔린」화할 방침이다.

7월 3일 保社部에 의하면 우선 서울 시내의 전차량을 「개솔린」화 하기 위해 교통부, 상공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중에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한다.

京釜高速 개통으로

鐵道歲收 33억 缺陷

철도청 接客·運行體制 등 全面 검토

鐵道廳은 京釜高速道路의 개통으로 많은 여객을 코

속버스에 뺏기게 될것을 예상 집객체제 및 여객열차 운영 전면 재조정하는등 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철도청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年間 총수송여객의 40%인 4백만명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금년도 여객 수입 목표 2백57억원을 2백24억원으로 33억원이나 감소하여 계획정하였는데 京釜간 고속버스가 첫 운행되던 7월 8일 서울역의 특급 행호호의 釜山行 승차권 발매수는 평일의 6백장(4일 6백2장, 5일 6백2장, 6일 6백32장)에서 대폭 줄어 들어 5백54장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철도청은 ① 승차권 배달제의 채택과 ② 특급열차 2대를 야간 침대로 전환하고 ③ 단체승객에 대한 20%~50%를 할인하며 ④ 역과 市內간에 승객을 수송하기 위한 버스운행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승차권을 시내 각 백화점이나 여행사에서 분산 판매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 美 自動車産業의 當面課題

◆...최근 美國自動車業界에 減員선풍이 불고 있다. 「빅·스리」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3社가 모두 일시 休業폭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조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 금년들어 1월상순 美國의 自動車판매 실적은 작년동기 보다 21%나 줄었는데 그때만 해도 계절적인 要因이라 낙관하던 것이 1월 하순까지 계속 판매실적이 저조할뿐 아니라 이불황이 쉽사리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메이커」들이 생산臺數를 조절, 이에 대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自動車 産業은 美國의 錢鋼의 20% 고무의 60% 유리의 30% 「알루미늄」의 10%를 消費하는 大産業인데 이 自動車産業이 앞으로 이렇게 減産을 계속한다면 전체 美國 경기에 심대한 영향을 줄것이라고 우려가 대단하다.

美國自動車産業이 이처럼 부진하게된 최대의 이유인 즉 政府에 의한 긴축 정책의 결과인데 高級車가 안팔리고 값이싼 小型車만 인기를 모아 西獨의 「폴크스바겐」, 日本의 「도요다」 및 「닛산」등 수입차가 잘 팔리고 있다는 것.

◆...물론 美國의 自動車産業 자체도 이렇듯 輸入車가 활개치는 상태를 봐서할 수 없어 최근 小型車 개발에 全力投球을 하고 있다고.

「포드」 같은데에서는 「지금까지 자동차 수입業者가 많은 재미를 보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들의 총

력적인 攻擊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정식으로 도전하고 있기도 하다. 10년전에는 수입車가 美國市場에서 판권적이 있었는데 반격을 받아 「폴크스바겐」 밖에 살아남지 못한 일이 있다. 이번 사태는 그 10년전의 會戰을 또 한번 되풀이할지 주목거리가 되고 있는데 1년간 1백만臺가 넘는 수입車 문제는 가부간 美國自動車産業의 당면과제가 될것 만은 틀림없을듯 하다.

★ 움직이는 道路

都市交通難은 어떤 나라나 골칫거리이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美國 「굿·이어」 「타이어」會社가 1시간에 2만2천명을 조금도 기다리게 하지 않고 운반하는 움직이는 道路를 개발했다. 이 새로운 輸送「시스템」은 「카·베어」로 命名되었는데 「콤포어·벨트」 위에 車輪이 없는 小型車體를 올려 놓고 時速 24킬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 車體에 自動車다툼이 타면 된다. 「카·베어」는 설세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驛을 통과할때는 時速 2·4킬로까지 速力을 줄여서 乘客을 내릴수 있게하는데 이것은 「스키」의 「리프트」에서 내리는 것보다도 쉽다. 近郊에서 都心部로의 輸送 空港周邊의 駐車場 「터미널·빌딩」을 연결하는 交通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The Goodyear Tire & Rubber Co.
1144 East Market St.
Akron, Ohio 44316, U.S.A.

★ 高速버스들 國產(來年보터)

車種單一化, 新進·現代中에서 擇一

商工部는 下半年부터 고속버스를 國產代替시키고 來年부터는 車種을 단일화시켜 1개업자를 선정, 生産을 전담시키기로 결정했다.

7월 13일 李洛善商工部長官은 8월말까지 新進과 現代양개社에 연차별 國產化計劃과 生産計劃을 제출토록 하여 양개社중 計劃수행태책이 확실하고 조건이 유리한 1개社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1개사만을 선정하려는 이유는 車種의 단순화로 고속버스의 사후보수와 부품조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李長官은 덧붙였다. 이와함께 李장관은 금년 하반기중에는 國產化 50%의 비율로 1개社에 수요자 신청에 따라 고속버스 生産을 전담시키겠다고 말했는데 70년도 交通部에 의한 고속버스 수요량 6백73대 중 4백30대는 이미 도입완료했으므로 下半年중 국산으로 대체될 고속버스는 2백43대에 달한다.

한편 71년도 고속버스 수요량은 1백50대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들 버스는 交通部가 책정한 기준에는 미달되므로 1백킬로미터 이내의 단구간 운행에만 운행될 것이라고 한다.

★ 準高速道路를 건설

특심~蠶室島~廣州대 단지간 12·4킬로

서울시는 7월 20일 廣州대단지 건설과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특심-蠶室島 大團地간 길이 12·4킬로, 너비 35미터의 준고속도로를 건설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 도로 건설 계획은 廣州大團地를 오는 73년까지는 大田市규모인 7만5천가구 35만명을 수용할수 있는 위성도시로 개발키 위한 것이다.

3개년 계획으로 건설될 이 도로가 완공되면 千戶洞 一巨餘大團地까지의 「코스」가 1시간 30분이 걸리는 현재의 교통 불편은 20분정도면 특심까지 닿을 수있게 편리 해진다.

한편 서울시는 大團地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수정, 총 55억9천9백만원을 투입키로했는데 올해는 17억원을 들여 3백만평의 용지매수를 끝내고 (현재 1백 12만평 매입) 64만평을 택지로 조성하며 5천미터의 하수 시설과 2만동의 전기, 8킬로미터의 경공업단지진입로와 상수도 시설등을 갖추기로 했다.

또 연내에 3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내공업 「센터」와 합성수지, 전자, 「웨어」공장등 4개를 유치하고 이미 이주한 7천2백세대 13만6천여명의 생활여건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올해안에 1만5천가구 7만5천명을 더 이주시킬 계획이며 금년 단지사업비중 모자라는 5억4천만원은 2차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 百餘業體資格 잃을듯

上半年輸出 10萬弗實績 못 올려

올해 하반기 무역업자격 유지업체는 8백여 업체로 상반기 보다 1백여업체가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20일 商工部에 의하면 지난 6월부터 18일까지 하반기 수출업허가증 경신을 위한 신청을 접수했는데 9백 개 무역업자중 1백여업체가 무역업자격유지 조건인 10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 밝혔다.

올해 부터 무역업자격 경신을 연 2회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경과 조치로 상반기 10만달러, 하반기 20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려야 한다.

상공부는 10만달러의 실적에도 미달하는 업체는 중

소기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활선어등 1차산품 취급업자들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 運轉士없이도 自動車달린다

日, 高速路서 走破실험 路面에 電線깔아 誘導

日本通産省의 기계 연구소는 운전사 없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전기 장치를 개발, 고속도로상에서 실험하는데 성공했다고 7월 23일 발표했다.

이 연구소 대변인은 이 장치에 맞춰진 대형자동차가 22일 東京의 한고속도로에서 시속 50킬로의 평균속도로 10킬로를 주파하는데 성공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아직은 전선을 도로상에 깔아서 자동차를 이끌게 해야한다고 밝히고 지금은 실험단계이며 路邊의 전깃줄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특히 운전중에 졸린 운전자들을 위해 자동차에 가설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장치를 개발해낼 예정이며 이번 실험에 사용된 전기장치는 5만원 내지 6만원의 값이 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치가 언제 대중화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한다.

美國 「오하이오」州立大學 및 「포드」자동차회사에서 도 이와 유사한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루 28萬臺가 市廳앞 通過

광화문은 24만대로 2位

5만4천대의 각종 차량이 붐비는 서울에서 차량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시청앞으로써 하루 28만대가 통과하고 있으며 시간당 9만8천4백72대임이 서울시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는 서울시가 도로망 계획과 지하철 계획등 교통량분산을 위해 7월 1일과 2일 이틀동안 상오 7시부터 하오 10시까지 13시간 동안 시내 38개 지역에서 통과 차량의 실측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로 교통이 많은 곳은 ① 시청앞 (28만대) ② 광화문 (24만2백대) ③ 남대문 (19만2천대) ④ 세종호텔앞 (18만2백대) ⑤ 중앙청앞 (17만9천대) ⑥ 을지로 입구 (17만3천대)의 순이다.

自動車 없는 大路 東京繁華街에 「步行者天國」

祝祭만난듯 車道에 風船

車輛通禁 첫休日 銀座등에 50萬출발

『자동차 몰아내고 사람을 공해로부터 해방하자』는 공

해 추방운동의 하나로 실시된 東京번화가의 자동차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진후 첫 일요일인 8월 2일 낮 銀座 (긴자) 池袋 (이케부쿠로) 新宿 (신주쿠) 淺草 (아사쿠사) 등 東京의 번화가엔 50만을 넘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날 銀座거리는 新橋 (신바시)로부터 京橋 (교바시)까지의 1.4km사이의 자동차 통행이 금지 됐는데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시민들은 東京都知事 警視總監등을 선두로 차도 한복판을 기쁨에 넘쳐 활보하여 삼시간에 차도는 확 트인보도가 되고 말았다.

東京번화가 일대의 자동차 통행금지 거리는 약 15km인데 거리 양편의 상점 백화점은 이날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친절과 선전을 겸하여 수만장의 물수건과 냉차 풍선등을 파는 임시점포를 차도에 차려놓아 이채로 왔다.

7월 30일 비상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자동차 공해 추방운동을 본격화한 日本정부는 앞으로 山形 (야마가타) 新瀉 (니이가타) 横濱 (요코하마) 神戸 (고베) 福岡 (후쿠오카) 등 전국 12개 대도시에 대해서도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보행자 친국의날」로 정해 자동차 통행금지와 아울러 공해를 추방하는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 하루 平均 4百62萬원

京釜高速 通行料수입

서울~釜山간 고속도로 전노선이 개통된이후 하루 평균 1만8백50대의 차량이 이도로를 이용하였고 이에 따른 통행료 수입은 하루에 4백62만5천원에 이르고 있다.

道公집계에 의하면 지난 7월 7일 서울~釜山간 고속도로가 개통된지 만 1개월 동안인 8월 7일 현재 이용한 차량은 총33만6천6백75대이며 통행료 수입은 1억3천6백13만원에 달했다.

이용 차량 가운데 승용차가 49.8%인 16만7천6백64대, 고속버스는 12.8%인 4만3천94대, 화물차는 37.4%인 12만5천9백16대를 차지했다.

전노선 개통전엔 하루평균 7천5백84대 (통행료 2백82만7천원)였으며 서울~仁川간 고속도로는 평균 9천5백대서 1만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하루 1백10만원서 1백30만원의 「틀」 수입을 올리고 있다.

★ 湖南高速 工事順調

年内開通을 목표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建設 중인 大田~全州간 78킬로에 달하는 湖南고속도로건설은 8월 7일 현재 목표의 29.8%에 달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8월 건설부에 의하면 그 동안 湖南지방의 장마로 인해 고속도로 건설 작업에 지장을 주었으나 앞으로 건설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데 建設部는 8월말까지 는 총 工事의 41.4%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湖南고속도로는 大田에서 順天까지의 全長 2백89킬로를 계획하고 있으나 올해는 우선 大田에서 全州까지 (78킬로)만 建設하여 年內에 개통을 하게 된다.

★ 中型路線 合乘 등장

10월부터 都市間의 交通을 緩和

交通部는 연초부터 미루어 오던 中型路線合乘 택시 사업 면허에 대한 기준을 확정, 10월께부터는 실시할 예정에 있다.

陸運당국에 의하면 도로 운송 사업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中型路線合乘 택시 사업은 도시간의 교통완화 책으로 등장된 새로운 업종으로써 연초부터 이날현재까지 1백여건의 신청이 쇄도하여 경합하고 있다. 交通部는 면허 대상노선별 차량수요, 투입할차종, 면허업체의 시설기준등을 결정했으나 기존버스業者들의 반발로 단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主要免許對象路線은 ▲서울~仁川 ▲서울~水原 ▲春川~原州 ▲大田~大邱 ▲大邱~慶州 ▲釜山~慶州 ▲釜山~馬山 ▲馬山~晉州간등 10여개 노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 生고무 千4百톤 直販

調達廳, 盛需期가격 안정 위해

調達廳은 8월 13일 성수기 고무제품값의 안정을 위해 앞서 조달기금으로 비축한 생고무 1천4백40톤을 톤당 17만7천원에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키로하고 이에 대한 구입신청을 오는 17일 부터 25일까지 받아들이기로 했다.

「싱가포르」 산인 이생고무(RSS 1호)의 톤당 판매가액은 현국내 도매시세인 24만원선보다 6만3천원이나 싼것으로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키로 하고 현품은 釜山창고에서 인도키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구입희망자는 조달청 소정양식의 배정신청서 1통과 상공장관, 서울·부산시장 및 각 도시사 발행의 실수요자증명서 1통만 제출하면 된다.

★ 南山 1호터널 開通

서울驛안 高架道路도

서울의 새로운 명물인 南山 제1호 「터널」과 서울역

앞 고가도로가 착공 17개월과 16개월만인'8월15일 상오 朴正熙대통령을 비롯 梁鐸植 서울시장과 일반시민 학생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 됐다.

이날 개통된 南山 제1호「터널」은 중앙방승구 앞 3·1 고가도로에서 제3한강교와 직결되는 총 연장 1천5백30미터 폭 10.5미터 굴 높이 7.5미터의 3차선이다.

信託銀行 개발신탁자금 15억6천만원을 들여 건설한 이 「터널」은 앞으로 40년간 유료로 한국신탁은행에서 운영하게되는데 통행료는 2륜차 30원, 3륜차와 승용차 60원, 비스·트럭 90원, 특수차량 1백20원이며 「톨·지이트」는 필동쪽 입구에 자리잡고 있다.

한편 이날 같이 개통된 서울역앞 고가도로는 서울역을 「오비패스」, 퇴계로와 아현고가도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천2백48미터에 폭 6~10미터로 퇴계로에서 제2한강교와 서울대교가 연결되어 서울역앞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 타이어판크 自動修理

英國 「로즈·로이스」社は 「타이어」의 판크를 豫防하는 새로운 裝置를 개발하여 방금 「테스트」중에 있다한다. 유리조각이나 못으로 「타이어」에 작은 구멍이 뚫려 空氣壓이 점점내려가서 보통때의 10%이상까지 내려가면 「사스펜션」 근처에 붙여놓은 容器에서 自動的으로 發泡性고무가 壓縮空氣로 「타이어」안에 들어간다가 發泡性고무가 急速度로 「타이어」안에 퍼져서 內壁에 附着하여 구멍을 안쪽에서부터 막아버리는 동시에 保護膜으로서 「타이어」를 補強한다. 그래서 현 「타이어」로도 安心하고 달릴 수 있으며 發泡性고무를 使用하기 前보다 오히려 「타이어」의 壽命이 길어진다고.

★ 3個 高速道路 明年初 착공

총 2百17億원 投入

全州~光州, 서울~原州, 釜山~馬山

정부는 71년초부터 내외자 총2백17억9백만원을 투입 전주~광주간 호남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서울~原州간 영동고속도로와 釜山~馬山간의 남해 고속도로등 총연장 2백45km에 달하는 3개의 고속도로를 착공하기로 했다.

8월 18일 건설부에 의하면 來年에 着工하게 될 3개의 고속도로는 모두 年內에 2次線만 완공할 방침인데 湖南高速道路는 올해안으로 개통하게 될 大田~全州에 이어 全州에서 光州까지 90km로 총공사비 85억9백만 원중 內資 54억5천9백만원과 外資(IBRD) 1천만\$(30억

5천만원)로 되어 있다.

또한 嶺東高速도로는 서울~江陵간 2백43km중 서울~原州간 1백5km로 內資 88억원을 投入, 71年內에 2次線단 완공하기로 했다.

南海線은 釜山……順天까지 2백1km중 우선 釜山에서 馬山까지 50km만 內資 25억7천만원과 外資(IBRD) 18억3천만원(6백만\$)등 총47억원을 投入하여 71年內로 2次線단 개통할 방침이다.

★ 秋風嶺서 高速버스 大慘事

25명 죽고 22명 負傷

8월 21일밤 8시 10분께 경북 金陵郡 鳳山面 廣川洞 경부고속도로 秋風嶺 휴게실 앞에서 大邱를 떠나 서울로 오던 韓進관광운수소속 경기영 6-1070호 고속버스(운전자 金天洙·34)가 운전부주의로 높이 42미터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승객 47명중 운전자 金씨등 25명이 죽고 나머지 22명 전원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5명중 15명은 현장에서 죽사하고 10명은 병원으로 운반도중 숨졌다.

부상자들은 金泉도립병원과 신생·인선병원 등에 산입원중이나 사망자는 더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飲酒運轉者에 鐵槌

새로 發效되는 日 道路交通法

日本の 새 교통법이 8월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제 日本운전자들은 한모금의 알콜을 마시기 전에 유치장에 갈 각오가 되어있나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하게 되었다. 새 도로교통법의 하면 술 한모금만 마시고 운전은

해도 벌금형 내지 체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강력조치는 빈번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日本서는 금년들어 벌써 1만명 이상이 路上에서 죽어 갔으며 교통사고의 증가는 날로 늘어나 매년 기록을 경신할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교통사고의 9%가 취중운전으로 인한 과실로 밝혀졌다.

舊道路交通法下에서는 운전사의 입김에서 「알콜」 성분이 1리터당 0.25밀리그람까지 배출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사실醉中 운전임이 밝혀져도 사고만 안내면 그대로 묵과 되었었다.

그러나 新法은 「알콜」을 입에 대기만한 운전사도 3만圓의 벌금형부터 최고 3개월의 체형을 받게 되어 있어 醉中운전으로 밝혀지면 2년의 체형에 5만圓의 벌금을 물리고 2년내지 3년간 운전정지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東京경찰은 市內 1백여개소 요소에서 운전사의 음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인데 운전사가 검사에 불응하면 3만圓의 벌금형을 과하게 되어 있다.

이제 새로운 도로교통법 제정으로 술주정꾼들을 잡혀주던 日本人들의 구습이 급격히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新法은 운전사에게 술을 제공하는자나 권유한자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 9월은 수출상품 증신의 달

상공부는 9월을 수출상품 증신의 달로 설정하여 수출단체의 자발적(自發的)인 계몽지도와 수출종사원의 자발적인 수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별 계몽운동(啓蒙運動) 전개와 홍보활동(弘報活動)을 강화할 것이라고하며 오는 9월9일에 상공인대회(商工人大會)를 개최할 예정이다.

(金) (言)

地位를 줌으로써 能力은 發揮된다

사람을 任用할 때 우리는 그가 能力이 있어야만 地位에 앉힐 수가 있다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能力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過去와 現在에 대해서 能力이 있다는데 置重한 것이다. 우리는 그의 能力이 將來의 地位에 있어서도 그대로 通用할 것이라는 保證은 못가지고 있는 것이다.

높은 地位, 새로운 地位에 대한 能力은 실지로 그 地位에 앉혀서 일을 시켜보지 않으면 立證할 수 없다. 가령 그 사람의 能力이 80이고 地位가 要求

하는 能力이 100이라고 할 경우 決斷을 내어 그를 任用함으로써 그 사람의 能力을 百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일이다.

사람은 地位를 줌으로써 놀라울이만큼 能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素質이 있는 사람 能力이 있는 사람에게 地位를 주어 鍛鍊시키라. 百의 能力이 있기 때문에 地位를 줄 것이 아니라 地位를 주어 百의 能力을 키우고 발휘시키라.

<土光敏夫著「經營의 行動指針」에서>